
킹과 잠자리

작성자

서울 경성중학교 김병성 선생님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킹과 잠자리
케이슨 캘린더 지음 | 정희성 옮김

-
- 주 제 어 #인권 #성소수자 #인종 #교차성 #정체성 #가족 #사랑 #혐오 #차별
 - 분 류 청소년 > 청소년 문학
 - 선 정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전미도서상 청소년문학 부문 수상작
보스턴글로브훈북 수상작 / 코레타스콧킹 명예상
-

도서 소개

출간 이후 권위 있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전미도서상 및 각종 문학상을 휩쓴 아름다운 성장 소설. 흑인 청소년 '킹'은 형의 죽음과 친구의 실종 사건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갑니다.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인종 차별과 아동 학대 그리고 성 정체성을 둘러싼 세상의 차별은 킹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소설은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는 지 보여 줍니다. 세상의 차별에 균열을 내고,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 역시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학습 목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성취 기준〉

[9국02-0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수업에 앞서

사랑한다 애야
너도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지 않는단다.

- 나태주 시인의 「서로 하는 말」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랑과 삶 또한 어른의 그것과 같다. 그러나 일부 어른은 간혹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기시한다. 현대 사회의 아동·청소년은 더 빠르고 건강하게 변화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어른의 시선에서 아동·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로 비치기 쉽다. 특히 과도한 보호주의적 인식은 주체적 인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존재를 부정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삶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보호주의라는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케이슨 캘린더의 『킹과 잠자리』는 ‘킹’이 겪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킹’은 그와 연결된 가족, 친구, 이웃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을 찾아 나간다. 때로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킹’을 구속하지만, 그는 자신을 포함한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는 용기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킹’이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을 수용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독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된다. 이 책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수업 초점

1. 나의 교차성 이해하기

『킹과 잠자리』는 청소년을 독자로 하는 성장 소설이자, 아동·청소년과 가깝게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인식과 삶의 지점을 발견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수업 시간에 간혹 ‘나’를 나타내는 말을 한 단어로 찾아 표현하는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많은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교차성’이다. ‘교차성’은 젠더, 인종, 나이, 직업, 출신 지역, 경제적 계층 등 인간의 다양한 정체성이 결합할 때 원래 없던 차별이나 특권이 생기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다양한 정체성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관여하며 한 개인을 이룬다는 것이다.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나 교차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교차성은 모든 종류의 혐오와 차별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을 근거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성차별에는 특정 성에 대한 위계를 비롯하여 나이, 권력, 인종,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차별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성을 통해 개인 사이에 다양한 층위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무언가 모를 ‘불편함’이 인지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특히 ‘킹’이라는 인물을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서는 교차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킹과 잠자리』를 활용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구성할 때, 교차성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소설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잠자리에게 쓰는 편지

『킹과 잠자리』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은 개인적 활동이 주를 이룬다. 앞서 언급한 교차성의 개념을 통해 ‘킹’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독자가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적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읽기 중 활동으로 구성된 쓰기 활동의 형식은 편지글이다. 편지글은 개인적 글쓰기의 영역으로, 독자가 소

설을 읽고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독자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잠자리에게 신는 편지’를 작성하고, ‘킹’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역량을 기를 수 있다.

3.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지도 시 유의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성취 기준〉

- [9국02-02]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한다.
- [9국05-03]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성취 기준〉

- [9국02-0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킹과 잠자리』는 다양한 학년(군)의 수업 도서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낯선 문화적 배경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일상의 장면에서부터 소설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3학년(군) 성취 기준 이상의 읽기 역량을 갖춘 독자에게 추천한다. 더불어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하므로 충분한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 책을 읽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 읽기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고, 충분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 책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잠자리에게 신는 편지’를 매개로 독자와 교사가 소통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독서 계획

읽기 단계 따른 차시	활동	비고
읽기 전 차시	[킹과 만나기 전] 나의 교차성 점검하기	독자에 따라 읽기 속도가 다르므로 차시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음.
읽는 중 차시	[킹과 만나며] 잠자리에 신는 편지	
읽은 후 차시	[킹과 만난 후] 아동·청소년 성소수자와 연대하기	

읽기 전 활동

- 책을 읽기 전 표지와 『킹과 잠자리』에 대한 찬사를 살펴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 교차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차성을 점검해 본다.

1. 책 표지와 추천사 살펴보기

1-1. 책의 표지와 『킹과 잠자리』에 대한 찬사를 읽고 내용을 예측해 봅니다.

Q. 소설의 중심인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A.

Q. 소설의 중심인물과 잠자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

Q. 표지와 『킹과 잠자리』에 대한 찬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적어 봅니다.

A.

1-2. 아래의 글귀를 읽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당신들이 옳을 겁니다. -『킹과 잠자리』에서

Q.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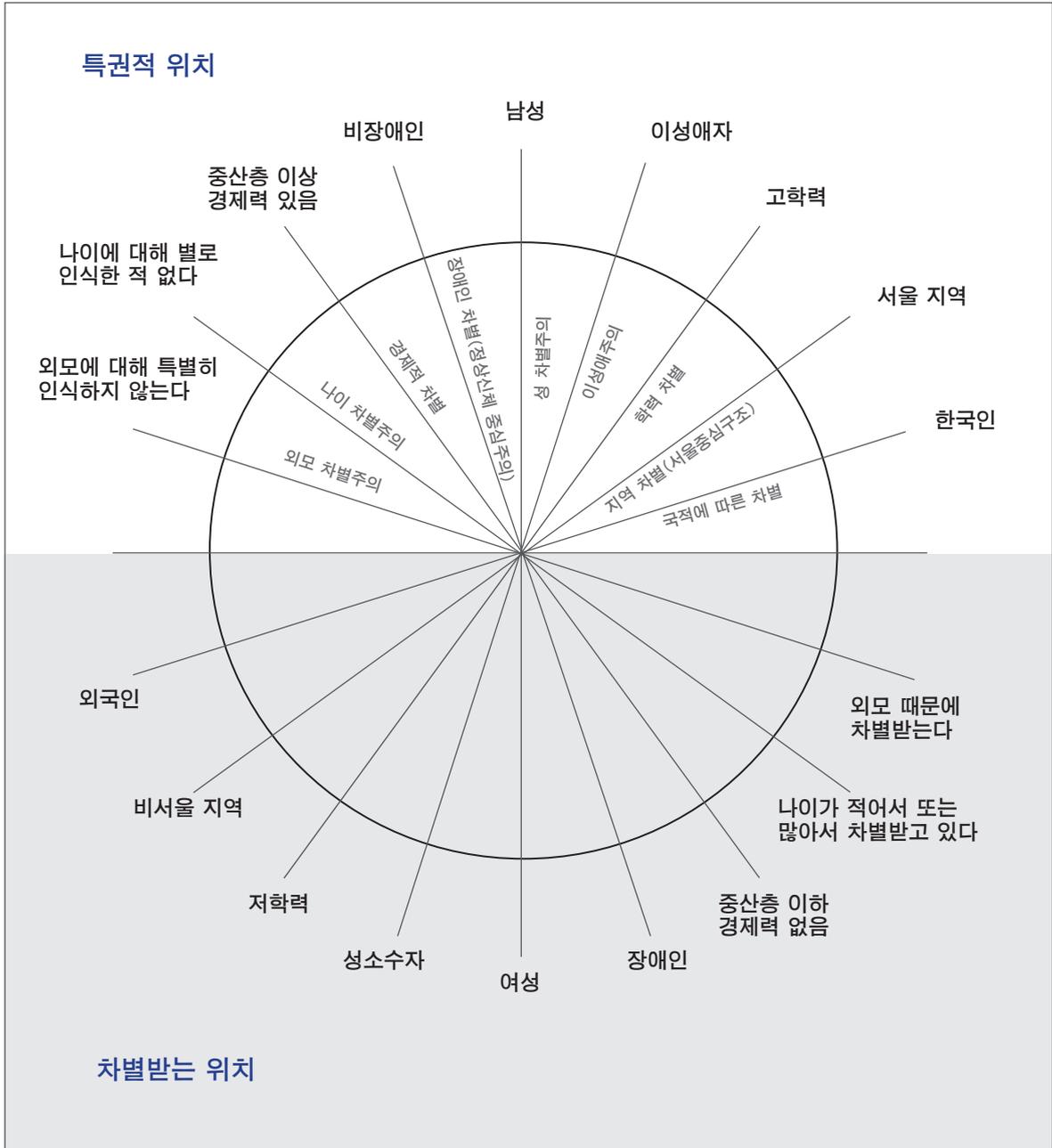
A.

Q. 내가 경험한 사랑은?

A.

2. 나의 교차성 점검하기

2-1. 아래 그림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 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점에 점을 찍어 표시해 봅니다.



출처: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2-2. 위에서 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Q. '나'는 특권적 위치와 차별받는 위치 중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A.

Q. '킹'은 특권적 위치와 차별받는 위치 중 어디에 가까운 사람일 것 같나요?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A.

3. 다음 자료는 한국에서 취업한 여성 노동자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¹⁾

지성(20) · 특성화고 졸업 후 현장실습으로 취업을 나갔음. 5개월간 정규직으로 계약을 맺고 사무직 업무를 보다가 시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음. 해고 통보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며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을 때 작은 피드백을 들어도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 속에 일을 했음. 구직 활동 시 경험하는 불안감이 싫어서라도, 이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비건 지향이며 회식 때 난처함을 느낄 때가 있음.

“그리고 학력 부분. 저는 고졸이니까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학력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말고는 적을 게 없어서. 괜히 공간 차지만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처음에는 솔직하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혼할 때 힘든 건 없었냐, 이상한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요즘은 아예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안 드러내요.”

1)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료집] '토크쇼' 복합차별 in 일터_여성노동자, 다르지만 닮은>, 2022
<http://women21.or.kr/society/20819>

유진(49) · 태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MBA를 수료. 외국계 회사에서 AVP(Assistant Vice President)로 근무하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이주한 지 14년 차로 남편과 자녀 1명과 거주. 한국에서는 태국어 통번역 알바나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주여성인권센터 인턴으로 일하고 있음.

“태국 대사관에 이력서 보냈는데 공고가 34세까지였는데 서류를 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면접 가니까 ‘왜 냈냐’고 했죠… 결국 안 되었어요. 그 뒤로 저도 40대까지 가능한지 보고 이력서를 내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얼굴도 예뻐야 하는 거고 몸도 날씬해야 하고 나이도 34세까지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력서 보내면 받아 주냐?’고 물어보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저랑 맞지 않았어요.”

메이(33) ·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취직 준비를 한 시간을 제일 힘든 시간으로 기억함.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직을 할 때 다음 직장을 구해 놓고 할 정도로 구직의 어려움이 없었음. 현재 동성 파트너와 해외에서 거주하며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음. 가족들에게는 커밍아웃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음.

“이력서 몇백 통을 넘게 써도 면접은 열 몇 군데만 봤어요. 면접에서도 질문 같은 거를 받아도 저한테는 ‘국제 유가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면, 옆에 있는 남자인 면접 지원자 분한테는 ‘술 잘 먹냐’ 뭐 이런 식의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했어요. 그 면접에서의 경험들,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냐’ 이런 계획을 묻지는 않지만 ‘야근을 할 수 있냐’라든지 아니면 ‘본가가 지방인데 괜찮냐’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면접을 정말 잘 봤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불합격 통보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적으로 이제 지치고…”

3-1. 아래 질문에 답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문제를 교차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니다.

Q. '2-1 그림'에 지성, 유진, 메이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봅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선을 그어 표시해도 좋아요.)

A.

Q. 지성, 유진, 메이가 겪은 경험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을 찾아 자기 삶에 비추어 적어 봅시다.

A.

Q. 현재의 내가 당장 취업한다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A.

Q. 현재의 내가 당장 취업한다면,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읽는 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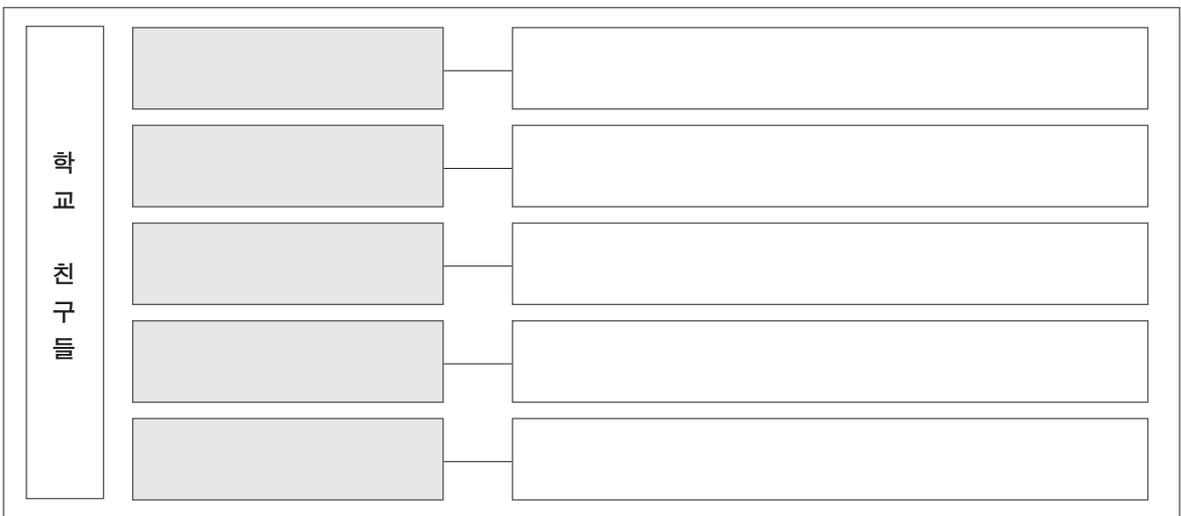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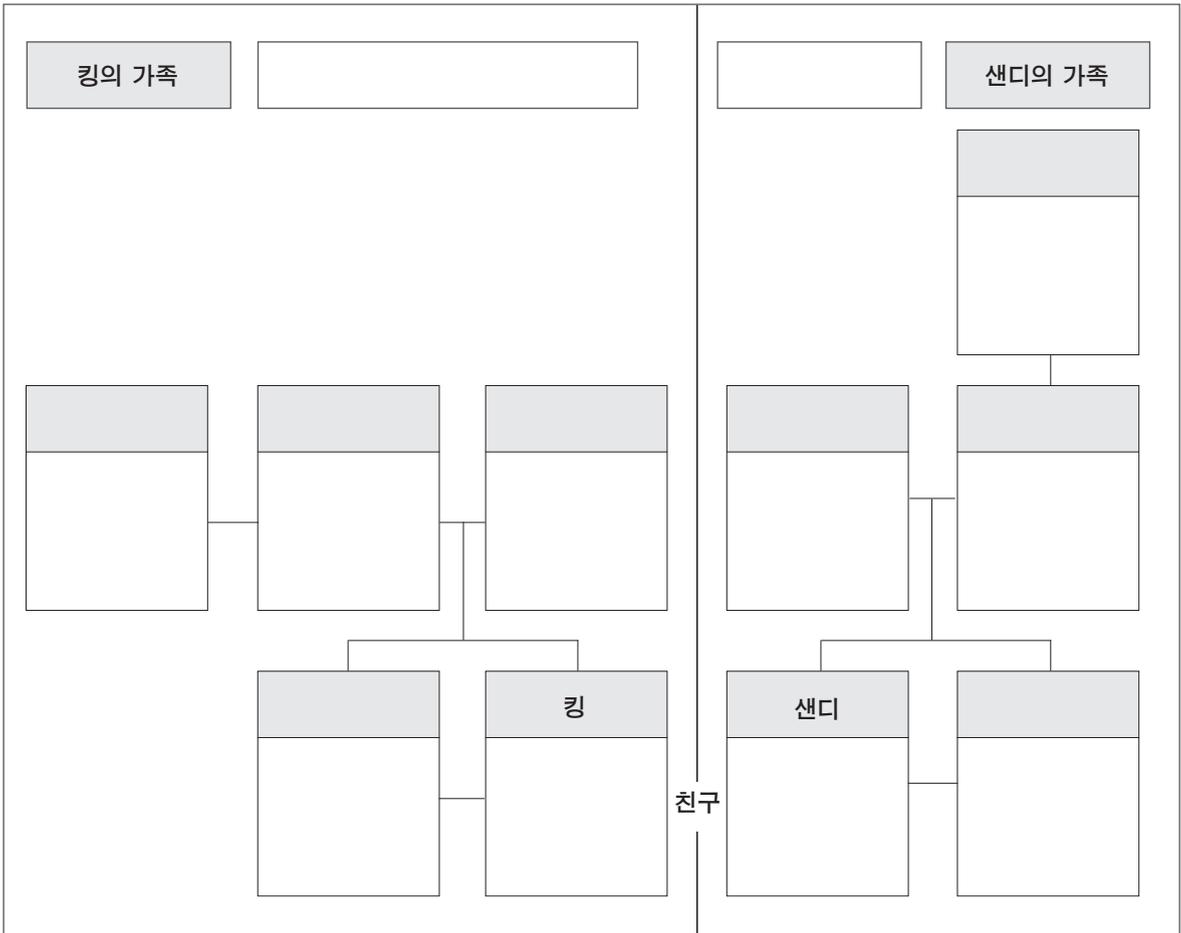
- 책을 읽으며 인물 관계와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 소설 속 인물에 공감하며 편지글을 작성하며 책을 끝까지 읽는다(최소 8차시 확보).
- 편지글과 관련하여 답장 혹은 댓글의 형식으로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1. 인물 관계도 그리기

『킹과 잠자리』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채워 보세요!

■ : 인물의 이름이나 호칭을 기록 / □ : 인물의 특징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서술



2. 잠자리에 싣는 편지

2-1. 소설 속 인물에 공감하며 편지글을 작성하며 책을 끝까지 읽는다(최소 8차시 확보).

읽은 날짜	월	일	교시	읽은 쪽수	쪽 ~	쪽
-------	---	---	----	-------	-----	---

Q1. 오늘 읽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Q2.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만 뽑아 옮겨 적어 봅시다.

Q3. 잠자리에 싣는 편지 : 오늘 만난 킹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작성해 봅시다.

Q4. ()에게 : 킹 외의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에게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답장 여러분과 선생님이 소통하는 칸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은 후 활동

-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식하고, 소설 속 인물을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 읽는 중 활동을 바탕으로 나만의 『킹과 잠자리』에 대한 찬사¹⁾를 적어 봅시다.

Tip) 내가 다니는 학교, 한국의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 (이름: _____), (_____)학교 학생

2. 『어린이라는 세계』(김소영)라는 글 일부를 읽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생각해 봅시다.²⁾

어린이들에게는 서운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린이날이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날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어린이가 ‘해방된 존재’가 맞는지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방된 사람들답게 자유로운지, 안전한지, 평등한지, 권리를 알고 있으며 보장받고 있는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출판사, 2020

Q. 아동·청소년은 어떠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A.

Q. 킹, 샌디, 재스민, 대릴, 브리애나 등 소설 속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할까요?

A.

2) 법적으로 ‘아동’은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린이는 대상화된다. 어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어린이를 존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른이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오히려 사랑은 칼이 되어 어린이를 해치고 방패가 되어 어른을 합리화한다. 좋아해서 그러는 걸 가지고 내가 너무 야박하게 말하는 것 같다면, '좋아해서 괴롭힌다'는 변명이 얼마나 많은 폐단을 불러왔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린이를 감상하지 말라.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출판사, 2020

Q. 소설 속에서 죽은 형을 그리워하면서도 이미 세상에 없는 형이 준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킹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A.

Q. 소설 속에서 '샌디'는 어른들의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어떠한 상처를 경험했나요?

A.

Q. 여러분은 '어린이(청소년)'를 둘러싼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상처받고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A.

Q. 어른들의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상처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A.

Q. 어른들의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상처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A.

3. 킹의 주변 인물 중 하나를 골라 응원하는 나만의 콘텐츠³⁾를 제작해 봅시다.

- 내가 응원하고 싶은 킹과 샌디의 주변 인물에 √ 표시 :
- 킹의 가족 대럴 브리애나 재스민 (그 외 다른 인물:)
- 내가 위 인물을 응원하고 싶은 이유 :

선택한 인물이 등장하는 책 표지, 주변 인물이 주인공인 새로운 이야기, 선택한 인물을 지지하는 표어, 노랫말(가사), 만화, 포스터, 기사, 인터뷰 등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작해 보세요.

선생님과 생각 나눔 여러분과 선생님이 소통하는 칸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영역에는 '매체'가 신설되었다.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추가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한 뼉 더 읽을거리

킹의 부모님에게 공감이 되고,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지지자(앨라이)가 되고 싶다면?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성소수자부모모임, 한티재, 2019



내 안의 혐오·차별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서고 싶다면?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2019

